

# Daily Auto Check 2021.1.26(Tue)



##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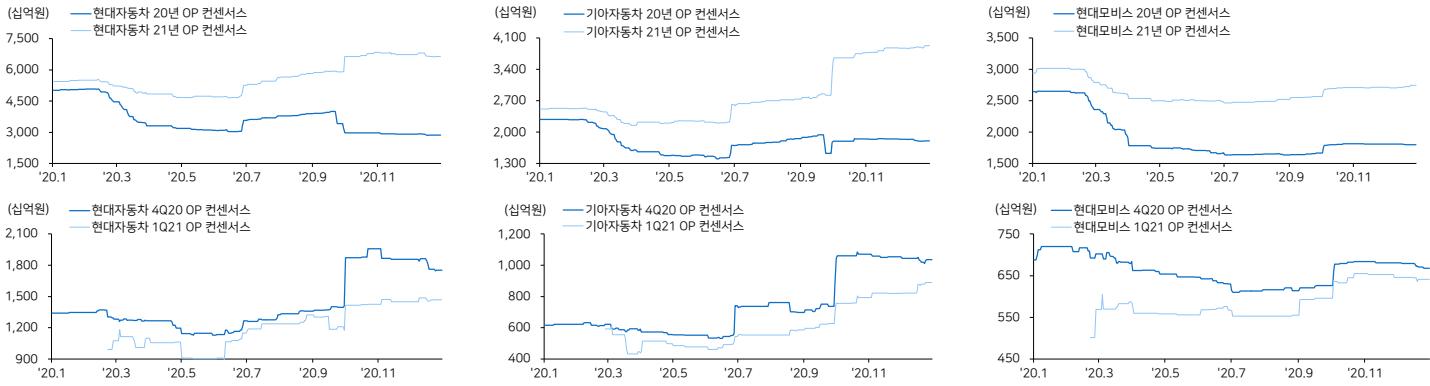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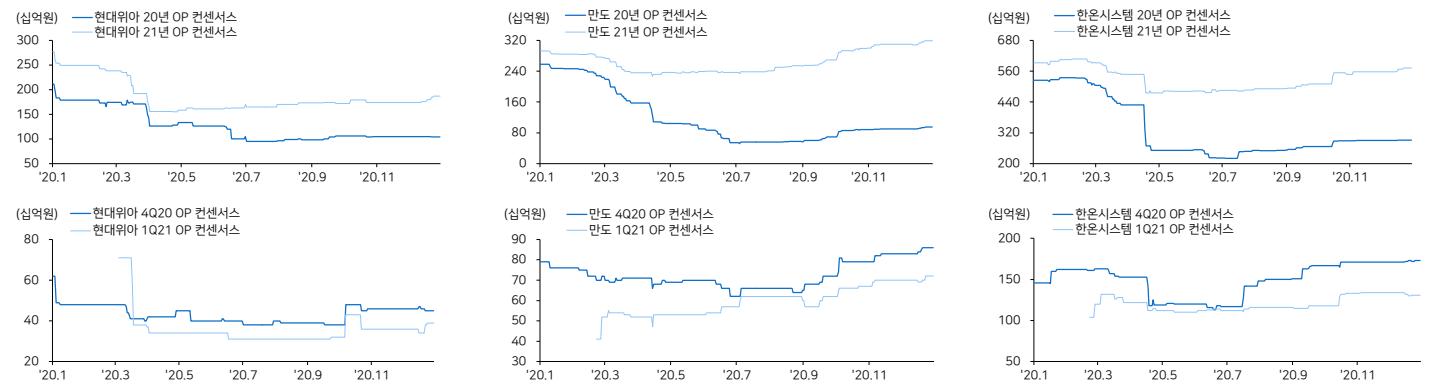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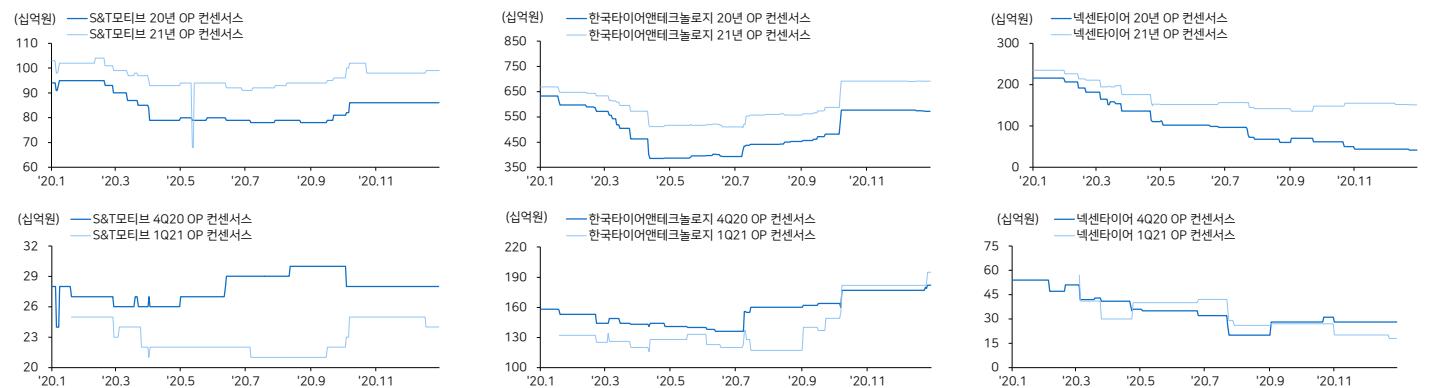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amp;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 반도체 공급난 6개월 이상 갈듯…'JIT' 버린 현대차·기아는 '선방 중' (서울경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나섰다.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불균형은 최근 6개월간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 반도체 공급 부족에 가격 인상까지 겹치면서 원성차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https://bit.ly/3ohDATH>

## ■ 지분투자부터 차세대구조개편까지…현대차그룹-애플의 '설설험' (서울경제)

현대차그룹과 애플의 자율주행전기차 협력설이 제기된 이후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음. 사실 유례없는 유통성 장세에 애플과의 협력 가능성성이 더해지면서 주력 계열사인 현대, 기아, 모비스, 글로비스 주식으로 돈이 몰리는 것.  
<https://bit.ly/39dhH2Q>

## ■ 모빌리티 없는 쌍용·GM·르노삼성 자동차 3사…불투명한 미래 (중앙일보)

쌍용차를 비롯해 한국GM과 르노삼성 등 외국계 자본이 투입된 원성차 3사에 위기감이 고조. 쌍용차가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르노삼성은 8년 만에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에 들어감. 최근 집계된 3사의 자동차 생산은 5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음.  
<https://bit.ly/3odElnf>

## ■ 자율주행 4단계 핵심기술 개발에 1.1조 투입 (중소기업뉴스)

정부가 미래차 자율주행 4단계(Lv.4) 상용화 지원을 위해 라이다 등 센서, 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에 1조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함. 정부는 3단계 자율주행 중요기능 담당 9대 핵심부품 국산화와 후속 사업화를 추진.  
<https://bit.ly/3qRYCaE>

## ■ 현대차·기아 옷고... 한국타이어·르노삼성 올었다 (국민일보)

국내 원성차업체 간 양극화가 코로나19와 맞물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시장에서 70% 안팎의 점유율을 유지 중인 현대기아가 모빌리티에 투자를 이어가는 반면 중견 3사는 생산량 감소와 유통성 위기로 운신의 폭이 좁아짐.  
<https://bit.ly/36acb6e>

## ■ 현대차 매경에 AI로봇... 차설명까지 척척 (동아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인공지능 로봇으로 자동차 영업 현장에서 고객을 맞이하는 서비스를 시작. 현대차그룹은 얼굴인식 기술 등을 탑재한 인공지능 로봇을 비대면(온택트) 고객 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계획.  
<https://bit.ly/36bv34Y>

## ■ 타이어 3사, 작년 하반기 '반동'...올해 고성능·전기차용 시장 선점 (아주경제)

국내 타이어 업체 3사가 지난해 코로나19 악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호실적을 기록. 삼반기 글로벌 원성차 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장을 셧다운하면서 연쇄 타격을 받았지만, 하반기 들어 광장 기동률을 끌어올리며 실적이 크게 개선됨.  
<https://bit.ly/3a1bptq>

## ■ 대만 정부, TSMC 등에 자동차 반도체 생산 증가 촉구 (뉴스원)

25일 로이터통신과 뉴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월메이회 대만 경제부 장관은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일본, 독일 등으로부터 자동차 반도체 부족 해소를 위해 도움을 요청받았던바 이를 기업들에게 협력해줄 것을 당부.  
<https://bit.ly/3pmvy6m>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